

하상 주보

 버지니아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주임신부: 배하정 다니엘
보좌신부: 원종권 핀따노
사도회장: 허진 세바스찬
연령회장: 홍의훈 요셉
(703-966-8206)

사무실: 703-968-3010
703-968-3011

주소: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웹사이트: <https://stpaulchung.org>
이메일: sthasang@gmail.com



미사안내 (Mass Schedule)

주일미사	* 8:00 AM * 10:00 AM (교중미사) * 2:00 PM (학생미사) * 5:00 PM (청년미사)		
토요일저녁 주일미사	* 7:30 PM		
월, 목, 토	화, 금	수	
* 6:00 AM	* 7:30 PM	* 11:00 AM	

“받은 만큼 되돌려 드리는 해”

동유럽 성지순례



동유럽 4개국 10박 11일 순례 감상문

+ 찬미 예수님

동유럽 4개국을 걸어난 10박 11일의 순례는 단순한 여행이 아니라, 신앙의 뿌리를 다시 확인하는 깊은 영적 여정이었습니다. 헝가리의 다뉴브 강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우리 각자가 순례자”라는 말의 참뜻을 몸과 마음으로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가톨릭 국가를 세운 성 스테파노 왕의 역사와 동굴 성당에 모셔진 파티마 성모님을 마주하며, 신앙은 시대와 장소를 넘어 이어지는 살아 있는 전통임을 느꼈습니다.

동유럽 성지순례

오스트리아 비엔나의 성 슈테판 대성당 미사에서 느낀 뜨거운 현존과, 아기 예수님을 모신 승리의 성모 성당과 하늘을 향해 높이 솟은 강론대와 제대를 보며, 우리의 기도가 하느님께 닿기를 바라는 간절한 청원 기도를 올리기도 했습니다. 7,000개가 넘는 파이프 오르간의 울림을 맘으로 느끼며 2,000년 전 최후의 만찬에 초대받은 듯한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나는 길이요 생명이다” 하신 말씀처럼, 순례는 일상 속에서 하느님께 향하는 길을 다시 찾는 과정이었습니다.

체코에서는 묵주기도의 깊이를 새롭게 배웠습니다. 묵주기도는 단순한 반복이 아니라, 주님의 일생을 성모님과 함께 묵상하며 내 삶을 비추는 영적 무기였습니다. 또한, 고해성사의 비밀을 지키기 위해 목숨을 바친 성 네포묵 주교님의 순교 이야기는 신앙이 도달할 수 있는 가장 아름다운 절정을 보여주었습니다.

폴란드에서는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님과 성 콜베 신부님의 삶을 통해 ‘자비’와 ‘희생’을 묵상했습니다. 아우슈비츠의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인간의 악함과 이를 덮고도 남는 하느님의 절대적인 자비를 절감했습니다. 성녀 파우스티나 수녀를 통해 예수님께서 직접 계시하신 ‘자비의 기도’는 주님의 보혈과 사랑이 지금도 살아 숨 쉬고 있음을 전해 주었고, 폴란드 국토 곳곳에 스며 있는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님의 발자취는 뜨거운 영성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순례에서 얻은 가장 큰 깨달음은 “순례자는 단 하나만이라도 영적 깨달음을 얻으면 충분하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수많은 성지에서 확인한 것은 거창한 공로가 아니라 성경과 교회의 가르침에 충실한 ‘기본에 충실한 신앙’이었습니다. 십자가는 고통이 아닌 구원의 표징이며, 예수님의 부활이야말로 우리 신앙의 중심이라는 진리가 가슴 깊이 새겨졌습니다.

동유럽에서 만난 천 년의 믿음과 순교자의 피, 그리고 하느님을 향한 단순한 사랑은 제 신앙의 본질을 다시 붙잡게 해준 은총이었습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가 사도로서 파견되지만, 순례자로서의 여정은 계속될 것입니다.

TOTUS TUUS(모든 것이 당신의 것), 제 모든 것을 하느님과 성모님께 맡겨드리며 기쁘게 다시 걸음을 내딛습니다.

- 서영주 헬레나

바오로회 가정모임

지난 5월 3일 주일 미사 후 친교실에서 바오로회 가정모임이 있었습니다. 바오로회 멤버들과 아이들이 함께 담소와 음식을 나누며 서로 조금 더 가까워지는 시간을 보내며 기쁘게 마무리 하였습니다.

바오로회는 본당 내에서 신혼 부부부터 자녀가 있는 44세까지 성가정을 이룬 젊은 가족의 모임이며 두달에 한번씩 모여 즐거운 친교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많은 신자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복음묵상의 향기 '말씀' 오소서, 성령님

실선으로 구성된 혈관이 순환을 통해 생명을 유지하듯, 유형·무형의 선(線)이 세상 안에 '소통과 활력'(생명)을 제공합니다. 도로·철로처럼 '저기와 여기'(공간)를 연결하는 '유형의 선'과 더불어 '그때와 이때'(시간), '이 사람과 저 사람'(관계)을 이어주는 '무형의 선'이 있습니다. 사랑은 관계를 유지하는 선이 견고한 끈과 줄로 발전한 상태입니다. 이와 유사하게,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한' 성령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연결선이며,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선입니다.

연결하는 선은 구분하는 역할도 합니다.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보호선, 소유권 보존을 위한 경계선처럼, 선은 방어 영역을 보장합니다. 선 굵기로 윤리적 가치나 실용적 가치가 선별됩니다. 인간관계에서도 자신을 장악하려는 상대, 상대를 지배하려는 자신에게서 벗어나 상대를 상대답게, 자신을 자신답게 하는 선이 요청됩니다. 이와 유사하게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는' 성령은 성부와 성자 사이의 구분선이며,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구분선입니다.

아버지와 아들 이미지를 도입하여 실제 대상처럼 접근할 수 있는 성부·성자와 달리, '비둘기'와 '불의 혀'로 표상되더라도 형상화가 곤란한 성령은 친밀하게 다가오지 않습니다. 이 이유로 두 현상이 포착됩니다. 하나는 '성령에 대한 회피'입니다. 이는 삼위 중 성령이 비주류에 속한 수식어에 불과하다는 인상을 받게 만듭니다. 다른 하나는 성부·성자와 별개의 '성령에 대한 몰입'입니다. 이는 성령이 성부·성자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음을 간과하게 만듭니다.

"성령을 받아라"(요한 20,22)는 숨은 그림으로 현존하는 '선'에 대한 의식을 강조합니다. 니케아-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은 성부와 성자, 하느님과 인간 사이의 연결선이며 구분선인 성령을 "생명을 주시는 성령"으로 공언합니다. 성부·성자와 더불어 세상 창조 이전부터 존재한 성령은 성자의 강생과 공생활 중에도 활동하였고, 부활 이후 제자들에게 역동적 힘을 불어넣어 교회를 본격적으로 등장시켰습니다.

요한 복음이 "보호자"로 대상화한 성령은 '안에'와 조합하여 양방향으로 진술됩니다. '성령 안에 인간'은 하느님과 연결된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이 성령은 '평화, 일치, 사랑의 영'입니다. 역방향인 '인간 안에 성령'은 양심에 거주하면서 담대하게 진리를 말하고 선을 행하도록 인도합니다. "진리의 영"인 성령은 "아빠! 아버지!"를 부르는 자녀가 이 기쁨을 온 세상에 선포하도록 촉구합니다. 이는 "성령의 성전"인 교회에도 적용됩니다. '성령 안에 교회'는 '다양성 안에 일치'를 도모합니다. 교회 조직과 제도는 구성원의 은사들이 상호 연결되도록 조정하는 보조 수단입니다. 역방향인 '교회 안에 성령'은 '식별의 영'입니다. 미움에 선을 그어 용서를, 욕망에 선을 그어 봉사를 실천하게 이끄는 성령은 교회가 복음적 가치를 최전선에 배치하여 "열매"를 맺도록 재촉합니다. "오소서, 성령님!"("일을 시작하며 바치는 기도'의 시작 문구)

[금주의 교리상식]

성령 강림 대축일

가톨릭교회는 주님 부활 대축일로부터 50일째 되는 날 성령 강림 대축일을 기념합니다. 그리스도가 부활한 후 성령이 사도들에게 강림한 것을 기념하는 이날은 교회의 생일이기도 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 강림을 거센 바람, 불꽃 같은 혀, 그리고 서로 다른 언어들 나오는 장면으로 묘사합니다. 이 장면의 핵심은 '변화'에 있습니다. 두려움 속에 문을 걸어 잠갔던 제자들이 밖으로 나와 말하기 시작했다는 점입니다. 성령은 제자들에게 복음을 세상 앞에서 증언할 용기를 줬고, 교회는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성령 강림 대축일 전례는 교회가 어떤 존재여야 하는지를 묻습니다. 이날 복음에서 제자들은 유대인들이 두려워 문을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그 한가운데로 부활한 그리스도께서 들어와 말씀하십니다. "평화가 너희와 함께." 이어 숨을 내쉬며 성령을 주십니다. 이처럼 성령은 존재 자체를 다시 살아나게 하는 숨결입니다.

미사중에는 제2독서와 알렐루야 사이의 '부속가'가 울립니다. "오소서, 성령이여"로 시작하는 이 노래는 전례력 전체에서 주님 부활 대축일과 성령 강림 대축일, 단 두 번만 울립니다.

성령 강림 대축일을 기점으로 부활 시기는 끝나고 연중 시기가 시작됩니다. 제대 곁에 서 있던 부활초도 자리를 옮깁니다. 부활의 빛이 이제 일상의 자리로 들어오라는 신호입니다. 미사가 끝날 때 사제는 말합니다. "가서 복음을 전하십시오."

1. 성령 강림 대축일 모임 안내

- 5월 24일 (일)
 - 루가회 월례 회의 (오전 11시 30분)
 - 메모리얼 데이 깜짝 피크닉 (오후 2시 미사 후)
- 5월 30일 (토)
 - CYO 졸업 파티 (오후 2시)

2. 삼위일체 대축일 모임 안내

- 5월 31일 (일)
 - Workcamp 기금마련 Car Wash (오전 7시 30분)
 - 하상 문화원 이사회 (오전 11시 30분)
 - 구역 봉사자 간담회 (오전 11시 30분)
- 6월 4일 (목)
 - 첫 목요일 신심 미사 및 성체 강복 (저녁 7시 30분)
- 6월 5일 (금) : 십자가의 길 (저녁 6시 45분)
베드로회 형제 모임 (저녁 8시)
- 6월 6일 (토)
 - 첫토요일 성모신심 미사는 6월 13일(토)에 봉헌됩니다.
 - 새벽 미사 있습니다.
 - 이동한 다니엘 부제님 사제 서품 미사 (오전 11시)

3. 메모리얼 데이 깜짝 피크닉

- 일시 : 5월 24일 (일) 오후 2시 미사 후
- 대상 : CCD, CYO 주일학교 학생들 가정
- 장소 : 나눔터 (우천시 친교실)
- 메뉴 : 햄버거 & 핫도그
- 회비 : 한 가정당 \$20

4. '신앙의 신비여' 응답 변경 안내

- 5월 25일 (월)부터 '신앙의 신비여'에 대한 응답이 '나'양식으로 바뀝니다.

5. CYO 졸업 파티

- 일시 : 5월 30일 (토) 오후 2시, 친교실
- 문의 : 구아름 데레사 (703-599-8869)

6. 2026년 - 2027년 예산안 계획서 제출 안내

- 각 부서는 지난해 결산을 기준으로 2026년 - 2027년 예산안 계획서를 작성하여 사목회 회장단 담당 부장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 마감 : 5월 31일 (일) 오전까지

7. 구역 봉사자 간담회

- 일시 : 5월 31일 (일) 오전 11시 30분
- 장소 : A-1,2
- 본당 신부님과 구역 봉사자 간담회가 있습니다. 구역 중심의 소공동체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모색하려고 합니다. 구역 봉사자 분들께서는 꼭 함께 해주시길 바랍니다.

8. K of C 봉어빵 판매

- 일시 : 5월 31일 (일)
- K of C에서 봉어빵을 판매합니다. 신자분들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9. CYO Workcamp 기금 마련 Car Wash

- 일시 : 5월 31일 (일) 오전 7시 30분 - 오후 3시
- 장소 : 하상관 뒤쪽 주차장
- 올해 6월 20일부터 26일까지 진행되는 Workcamp는 청소년들에게 봉사, 신앙, 친교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는 의미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 본당에서 Workcamp 참가를 준비하며 청소년 13명과 성인 봉사자 5명의 참가비 마련을 위한 세차 봉사를 합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기도와 관심,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 당일 주차장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세차는 하상관 뒤쪽에서 할 예정입니다.

10. 6월 첫 주간 전례 안내

- 6월 4일 (목) : 첫 목요일 신심 미사 및 성체 강복 (저녁 7시 30분)
- 6월 5일 (금) : 십자가의 길 (저녁 6시 45분), 미사 (7시 30분)
- 첫토요일 성모 신심 미사는 6월 13일(토)에 봉헌됩니다.

11. 사제 수품 미사 안내

- 일시 : 6월 6일 (토) 11시
- 장소 : 주교좌 토마스 모어 성당
- 본당에서 버스는 9시에 출발합니다.
- 당일 서품 미사 참례하시지 못하는 분들을 위해 수품 수품 미사를 유튜브를 통해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주소를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본당이나 가정에서 함께 미사에 참례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 또는 QR 코드를 통해 시청하시기 바랍니다.
- <https://www.youtube.com/live/lquUX3BolgI>



12. 수녀님 연피정 안내

- 이스텔라 수녀님과 안다니엘 수녀님께서 5월 26일 (화) 부터 6월 3일 (수)까지 연피정을 가십니다. 은혜로운 피정이 되시도록 기도 가운데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13. 새신부님 첫미사 안내

- 일시 : 6월 7일 (일) 10시
- 당일 8시 미사는 본당 신부 주례이며 10시 미사는 새신부님 주례로 바치는 첫 미사입니다. 첫미사에 대해서는 5월 31일(일)에 설명드리겠습니다.

14. 교구 축제 안내 (Diocesan Festival Celebrating Faith)

- 일시 : 6월 13일 (토) 오후 3시 45분 - 9시 30분
- 장소 : Berryville에 위치한 Clark County Fairgrounds
- 버비지 주교님의 주례로 미사가 봉헌되며 다양한 음악 공연과 음식, 어린이 놀이기구, 지역 상품 부스 등은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신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arlingtondiocese.org/festival 에서 자세한 내용을 확인하시고 무료로 참가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5. 안나회, 하상회 성경 공부 안내

- 6월 안나회, 하상회 회합날에 본당 신부 강의를 통해 창세기 성경 공부와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아주 작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이를 바탕으로 우리 본당 시니어 아카데미 (다니엘 사랑방)의 기틀이 마련될 것이라 여겨집니다. 안나회, 하상회 어머니 아버지 들께서는 많이 참석하시어 의미있는 노년의 삶의 시작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일정: 11시 30분-12시 30분 : 성경 공부
12시 30분- 13시 30분 : 식사
13시 30분- 14시 30분 : 회합
14시 30분 : 귀가

16. 첫영성체 미사 안내

- 일시 : 6월 14일 (일) 오전10시 미사 중
- 첫영성체 준비반 학생들이 오랫동안 기다려온 예수님을 모시는 첫영성체식을 거행합니다. 첫영성체를 받는 학생들 위해 기도와 관심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 당일 오후 2시 학생 미사는 주일학교 종강미사로 예정되어 있어 그대로 봉헌됩니다.

17. 꾸르실료 여성 제 19차 교육 안내

- 일시 : 7월 2일 (목) - 7월 5일 (일)
- 장소 : Bon Secours 피정 센터, MD
- 꾸르실료 3박 4일 주말교육에 참여를 희망하시는 자매님들은 꾸르실료 간사에게 문의해 주세요. 동 중부 여성 꾸르실료 교육에 많은 기도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 문의 : 간사 박기정 라파엘 (703-862-0039)

18. 비대면 (성서 사십주간-구약 1) 수강 신청

- 15주간 “가톨릭 성서 모임” 지도 수녀님의 강의를 들으며 모세오경과 역사서를 하느님 말씀이 인류 역사를 통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알게 되는 예정입니다.
- 일시 선택
 - 오전반 : 9월 2일 (수) 오전 10시 - 11시45분
 - 오후반 : 9월 3일 (목) 저녁 8시- 9시 45분
- 문의 : 오재노 로사 (703-772-7275)

19. 핸드벨 단원 모집

- 천사들의 손 - 마니 안젤리 핸드벨 연주단에서 음악으로 기쁨과 평화의 도구로 성실히 봉사하실 분들을 찾습니다.
- 문의 : 김루피나 (703-725-1261)

20. 성당 및 하상관 열쇠 교체 안내

- 성당과 하상관의 열쇠를 5월 말에 교체할 예정입니다. 성당 사용을 위해 봉사하시는 분들을 파악하고자 합니다. 새 열쇠가 필요하신 단체 및 교우분들께서는 사무실로 신청해주시길 바랍니다.
- 신청을 받은 다음 회장단과 봉사자 모임에서 논의 후 결정하여 새로운 열쇠를 드릴 분들에게만 열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6년 주교님 사목 보조비 (BLA) 약정

BLA 납부 방법 안내



- 매년 사순 시기 동안 실천하는 주교님 사목 보조비 BLA 기금은 교구내 자선 및 영적, 교육적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희망을 전하는데 소중한 사용됩니다.
- 기도와 희생의 마음으로 봉헌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봉헌은 도움이 필요한 이웃들의 삶을 도와주며, 오직 그리스도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화의 도구가 될 것입니다.
- 올해 본당 목표액 : \$200,000
- 온라인 접수 : 교구 웹사이트 (<https://www.arlingtondiocese.org/blc>, (성당 명칭 입력시 St. Paul Chung으로 입력)
- QR 코드를 스캔한 후 정보를 입력하고 신용 카드로 납부 가능합니다. QR 코드 이용이 어려운 신자분들은 안내 장소에서 도움받으시거나 사무실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 현금 및 수표 : 배부해 드린 BLA 봉투에 넣어 성당 입구 BLA함에 넣으시면 됩니다.

WYD 세계 청소년 대회 안내

- 2027 세계 청소년대회 (WYD) 참가자 등록을 시작합니다. 청소년과 청년들의 많은 신청 바랍니다.
- 등록 : 2시, 5시 미사 후
- 참가비 : \$3,000 + 항공료
- 등록 보증금 : \$500 (Security Deposit)-등록시
- 납부 방법 : 일시불 또는 페이먼트 플랜 선택 가능
- 준비서류 : 여권 사본
- 환불 안내
 - 한국 WYD 페이먼트 마감 전까지 환불 가능
 - 전체 환불 마감일은 추후 공지 예정
- WYD 일정
 - 원주교구 : 7월 29일 - 8월 2일
 - 서울교구 : 8월 3일 - 8월 8일
 - 출발/도착 예정: 7월 27일 출발, 8월 9일 도착
- 문의 : 이기열 막시밀리안 콜배 (703-862-2569)

지난주 우리들의 정성

2026년 5월 17일 (주님 승천 대축일)
봉헌금 ----- \$7,758.00
교무금 ----- \$7,590.00
교무금 (신용카드) ----- \$2,700.00
감사 헌금 ----- \$900.00
2차 헌금 ----- \$3,435.00
온라인 봉헌 ----- \$2,955.00
합계 ----- \$25,338.00

KACM TV 하이라이트

- 성 정바로 성당 제공 Cox ch 30, 830
Fios ch 30
- 2026년 5월 28일 (목) 오후 5시 - 6시
2026년 5월 29일 (금) 저녁 8시 - 9시
2026년 5월 31일 (일) 오전 6시 - 7시
1. 주일 미사강론
 2. CPBC 가톨릭 뉴스
 3. 철학으로 성경읽기: 요한 복음-1
 4. 특특 가톨릭 영상: 삼위일체

교중미사 예물봉헌

5/24 이번주	스프링필드 구역
5/31 다음주	프린스 윌리엄스 구역

Find a Mass near me



여행지에서 가장 가까운 성당과 미사시간을 찾을 수 있습니다.

www.masstimes.org

휴가 중에도 주일을 지키는 신앙인이 되시기 바랍니다.